

# <2020년 국가직 7급 외무영사직 합격수기>

## □ 여는 말

○ 안녕하세요. 2020년 국가직 7급 외무영사직 공채 시험에 최종 합격한 양OO입니다. 합격수기를 작성한다는 것이 아직 제게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외무영사직 합격만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에 매진하고 계실 많은 분들을 위해 합격수기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짧지 않은 수험기간 동안 정보 부족으로 인해 많이 힘들었고, 몇 안 되는 합격수기들을 읽으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제가 작성한 이 수기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 시험 진입 전 베이스

- 국제정치학 전공 (학사)
- TOEIC 945점
- 한능검 1급 (41회, 96점)
- 제2외국어 사실상 노 베이스 (학부 마지막 학기 때 기초 스페인어 과목 수강)

## □ 수험기간

- (수험기간) 2017.10 ~ 2020.09.26 [약 3년]
- (병역의무) 2017.09 ~ 2019.09 [사회복무요원 복무, 퇴근 후 독서실 총무하며 공부 병행]
- (노량진 생활 시작) 2019.10 ~ 2020.09.25 [황남기 스파르타 노량진 캠프 입실]

## □ 생활 습관

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노력

→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침형 인간 혹은 새벽형 인간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공부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지, 내가 하루에 어느 정도의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여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예를 들어보자면, 아침형 인간에 대한 강박을 이유로 어떤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고 일찍 잠들어 버린다거나,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어떤 날은 새벽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날 늦잠을 자버리는 등의 불규칙적인 생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오히려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몸이 아픈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늘 규칙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정립된 일정 생활 루틴은 필기시험을 보기 직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일주일에 하루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자

→ 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을 휴식일로 삼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가까이 5~6일 가량 공부에 매진하다보면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곤 하는데,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러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쉬어야 지구력 있게 공부도 오래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종일 쉬는 게 불안하신 분들은 1~2시간 정도 투자하여 암기카드 등을 만드는 데 긴 휴식 시간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③ 스마트폰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자

→ 저는 스마트폰을 학습(암기)도구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Quizlet 어플을 다운 받아 나만의 암기카드를 만들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헌법 조문, 부속법령, 국제법 및 국제정치학 단순 암기사항들을 학습하였습니다. 또한 헌법 O/X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무료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은 든든한 우군이 될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응시 시험 점수

○ 2018년 (65/30/90/85/80/80 = 총점 430점 탈락) [필기 합격선 510점]



<성적보기>를 클릭하면 성적의 상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응시년도	2018	응시지역	서울
응시번호	42 [REDACTED]	응시직렬	외무영사직(일반)
응시자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93 [REDACTED]

합격여부			
차수	1차 시험	불합격	<a href="#">성적보기</a>
	2차 시험		
	3차 시험		-

1차시험성적 상세보기

과목명	점수
국어(한문포함)(7급)	65.00
한국사(7급)	30.00
헌법(7급)	90.00
국제정치학(7급)	85.00
국제법(7급)	80.00
	0
	0
스페인어(7급)	80.00
	0
	0
평균/총점	71.66
합격선	85.00

○ 2019년 (75/60/75/75/75/85 = 총점 445점 탈락) [필기 합격선 525점]



<성적보기>를 클릭하면 성적의 상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응시년도	2019	응시지역	서울
응시번호	42 [REDACTED]	응시직렬	외무영사직(일반)
응시자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93 [REDACTED]

합격여부			
차수	1차 시험	불합격	<a href="#">성적보기</a>
	2차 시험		
	3차 시험		-

1차시험성적 상세보기

과목명	점수
국어(한문포함)(7급)	75.00
한국사(7급)	60.00
헌법(7급)	75.00
국제정치학(7급)	75.00
국제법(7급)	75.00
	0
	0
스페인어(7급)	85.00
	0
	0
평균/총점	74.16
합격선	87.50

○ 2020년 (80/90/90/85/80/85 = 총점 510 합격) [필기 합격선 500점]



<성적보기>를 클릭하면 성적의 상세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응시년도	2020	응시지역	서울
응시번호	42 [REDACTED]	응시직렬	의무영사직(일반)
응시자명	[REDACTED]	주민등록번호	93 [REDACTED]

합격여부			
차수	1차 시험	합격	<a href="#">성적보기</a>
	2차 시험		
	3차 시험	합격	-

+ 1차시험성적 상세보기

과목명	점수
국어(한문포함)(7급)	80.00
한국사(7급)	90.00
헌법(7급)	90.00
국제정치학(7급)	85.00
국제법(7급)	80.00
	0
	0
스페인어(7급)	85.00
	0
	0
평균/총점	85.00
합격선	83.33

## □ 전반적인 공부 방법

### ① 1주일에 집중 과목 한 과목 지정하여 공부

- 일주일에 1회독을 목표로,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투자
- 일주일에 과목 전체를 훑는 것이 너무 버겁다면 일주일이 아닌 10일을 기준으로 설정
- 1주일의 경우에는 한 달에 4과목을 가볍게 훑을 수 있음(10일의 경우에는 3과목)
- 시간을 정해놓고 회독 목표를 잡으면 긴장감이 생겨 공부 몰입 및 효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
- 초시생의 경우 2주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무방, 다만 회독수가 늘어날수록 2주 > 10일 > 1주 순으로 기간이 점점 단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함.

### ② (비전공자의 경우) 제2외국어는 감을 잃지 않도록 매일 공부

- 하루 최소 2시간 이상, 단어&문법 병행 or 택1
- ex) 월/수 문법, 화/목 단어, 토/ 독해 방식으로 제2외국어 학습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파트를 간헐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제2외국어 과목의 경우 기출문제만 반복하여 푸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시중 SNULT, FLEX 교재 등이나 학원 강사들의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③ 황스파 아침 모의고사 꾸준히 응시 (혼자 공부할 시 과목을 임의로 정하여 동형 모의고사 풀기)

- 모의고사 점수나 등수에 너무 집착하여 슬럼프의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지만, 적당한 긴장감 유지 및 동기부여를 위해 어느정도 의미부여를 하는 것 또한 분명히 필요합니다. 매번 압도적 1등을 노릴 순 없겠지만, 모의고사를 통해 상위권으로 도약하는 계기, 항상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 모의고사에서 틀렸던 문제들은 오답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기본서나 요약서에 단권화하는 작업 또한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모의고사를 푸는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습니다.
- 모의고사 과목들은 최대한 다양화 해야합니다. 월/수/금에는 법 과목을, 화/목/토에는 정치학이나 제2외국어 과목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 과목별 공부 방법

### ▲ 헌법 [90-75-90]

- 주교재: 윤우혁 헌법 기출 문제집 (필수)
- 부교재: 윤우혁 헌법 O/X, 윤우혁 진도별 모의고사, 황남기 진도별 모의고사 600제 (초시생 선택, 재시생에겐 권장)
- 암기교재: 황남기 헌법 조문집 및 부속법령집 or 전효진 헌법 조문집 中 택1 (권장)
- 최종 모의고사 교재: 윤우혁, 전효진, 김건호 동형모의고사 문제집 (권장)

많은 분들이 헌법 공부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으로 압니다. 저 또한 수험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이전에는 법학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은 잘만 다듬어 놓으면 충분히 호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공부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철저히 기출 중심의 학습만 하더라도 최소 85~90점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윤우혁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은 870문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두고 시험을 대비하기엔 지나치게 콤팩트하고 구성이 빈약하지 않느냐는 일부 수험생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오히려 체화도 하지 못할 무리한 양치기 및 암기 방식, 혹은 초고난이도의 진도별 모의고사 등으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것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PSAT을 제외하고서도 무려 네 과목이나 되는 전공과목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본인이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공부해도 상관 없겠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수험생들은 헌법만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양을 늘려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870여 문제의 기출문제만 잘 분석하고 이해해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위해 굳이 단계별 학습 방법을 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올인원 or 미니헌법 강의를 빠르게 듣는다.  
(초시생 기준 3주 내로 끝내는 것이 바람직)
- ② 기출문제집을 풀기 시작한다. 혼자 푸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경우 강의를 들으며 병행한다.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강의를 들으며 진도를 따라가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기출문제를 풀며 주의할 점은, 기출문제는 정답을 맞히기 위해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기 위해 푸는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맞혔다고 해서 그 문제를 내가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문제에 함축된 법리, 개념 등을 책을 덮고도 정확히 암기할 수준이 되어야 정말 그 문제가 내 것으로 체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선지 하나하나 뜯어보고 분석해본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책에는 오답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표시만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책에 표시해가며 푸는 것은 정말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풀 때 긴장감도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 ③ 기출문제를 어느정도 체화(최소 3회독) 했다는 생각이 들면 헌법 조문 암기를 병행한다. 헌법조문이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면, 국회법 등 bin출 부속법령 주요 조문들을 암기한다. 스마트폰의 Quizlet 어플 등을 활용해도 좋고, 황남기 선생님의 헌법조문집 및 부속법령집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뚫어져 있어서 암기에 활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 ④ O/X 교재, 진도별 모의고사, 동형모의고사 등은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다만 초시생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실력 및 감각 점검, 내용을 빠르게 회독하는 용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만 풀다보면 지켜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활용법이라 생각합니다.
- ⑤ 시험 한 두달 전부터는 꼭 최신판례를 정리해야 합니다. 작년과 올해에는 최신판례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2018년의 경우 최신판례가 무려 열 문제가 가까이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최신판례는 윤우혁 선생님의 특강을 수강하시면 되지만, 상당히 콤팩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심도있게 최신판례를 학습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황남기 선생님이나 이만복 선생님의 최신판례 무료 강의 수강 및 자료 열람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두 분은 정말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최신판례에 비중을 두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주 만족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 국제법 [80-75-80]

- 주교재: 이상구 국제법 요점정리서 (선택), 이만복 국제법 기출문제집 (필수)
- 부교재: 신국제법강의, 실전국제법정리, 이만복 국제법 심화 O/X, 이상구 판례집 (필수)
- 암기교재: Quizlet 어플을 통해 암기 카드 만들어서 자체 암기, 이상구 패권반 자료들
- 최종 모의고사 교재: 이상구 실전 동형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 이상구 패권반 모의고사 (권장)

국제법은 수험생활 내내 자신있던 과목이었는데, 막상 7급 시험 당일에는 항상 아쉬운 결과를 남겼던 과목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국가직 9급 국제법 시험에서는 매년 항상 90~95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7/9급 시험 간 점수가 들쭉날쭉 했는지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시험 간 난도 차이를 떠나서 일관되지 못한 공부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시험에서는 실력에 비해 과분한 점수를, 2019년에는 난도가 높지 않았음에도 실력에 비해 한참 모자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절치부심한 올해 2020년에는 자타공인 역대급 난도의 시험이었는데, 80점이라는 최상위권 수준(공단기 기준 443명 중 9등)의 점수를 얻어 국제법이 제 필기합격에 1등 공신 노릇을 했습니다. 국제법은 헌법과 달리 기출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등한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 없이는 탄탄한 기초공사 자체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출문제를 먼저 정복하되, 신국제법강의와 같은 심화 기본서를 정독하고, 심화 O/X 교재 등을 통해 국제법 법리를 이해하고 정오 판독을 정확히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저는 국제법 공부 방법을 여러 번 변경했기 때문에 요약서 위주로 공부를 시작했던 제 공부방법론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얇은 요약서를 통한 무한 반복 공부법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범위 및 난도가 급변하는 국제법 과목의 출제경향을 봤을 때 한계가 명확한 공부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수험공부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지 위주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위해 굳이 단계별 학습 방법을 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신국제법입문(초시자용) or 신국제법강의 or 실전국제법정리 교재를 통해 이만복 선생님의 국제법 강의 수강 추천 (한 달 이내 완강을 목표로 하세요.). 책이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고, 강의 또한 굉장히 친절하게 진행하십니다. 국제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강의라 생각합니다.
- ② 이만복 선생님 기출문제집 및 심화 O/X는 기본 강의를 들으며 단원별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출과 기본서를 분리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병행하여 함께 마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출문제나 O/X에 등장하는 판례들은 빈출 판례들이니 이상구 선생님 판례집을 통해 충분히 심화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 ③ 기본강의, 기출문제, O/X 문제집 회독이 어느정도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판례 정리가 필요합니다. 판례가 단독으로 문제에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지에는 항상 빈출판례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례 문제들을 기계적으로 잘 풀어내려면 평소에 판례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200여개가 넘는 모든 판례들을 다 같은 강도로 학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중심으로 핵심 판례들을 추려서 강약을 조절하여 공부해야 합니다. 올해 시험의 난도 기준으로는 신국제법강의 각주에 언급된 판례들 또한 상당히 비중있게 출제되었으니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 ④ 위의 모든 과정을 완료하셨다면 이상구 선생님의 진도별 모의고사, 단원별 모의고사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제법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올해는 그 정점이었습니다. 기출문제만으로 대비하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기본서 및 기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이상구 선생님의 단원별(진도별) 모의고사 및 동형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고, 낯선 문제를 접했을 때 대응하는 감각을 기르는 데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설도 제공되어서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 ⑤ 조약원문을 통으로 암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비추하는 방법입니다. 조약원문의 경우 원문이 상당히 러프하게 번역되어 있어 단순히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이 방대한 것에 비해 머리속에 남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열심히 암기해서 시험장에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약원문을 통으로 공부하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지만, 국제법 실력이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불안감 때문에 굳이 조약원문을 따로 공부하겠다고 하신다면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등 주요 협약의 빈출 조문 및 예상 조문 포커스를 두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상구 선생님의 패권반을 수강해보는 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 봅니다. 심화논점을 이상구 선생님과 함께 다룰 수 있고, 제공되는 자료들도 유용한 편이라 어느정도 실력이 쌓이신 분들에 한해서는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패권반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상위권 분들 다수가 저와 함께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 또한 꾸준히 패권반에서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는데, 등수 시스템으로 인해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성적우수상금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국제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극악의 난이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구 선생님의 패권반 마무리 자료 및 최종점검 자료 등에서 몇 문제들이 적중하였습니다. 엄청난 노력 없이는 절대 소화하기 쉽지 않은 콘텐츠들이지만 내년에도 국제법 시험이 올해와 같은 난도로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 고득점을 노리실 분들은 확실히 들어봄직한 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 국제정치학 [85-75-85]

- 주교재: 이상구 국제정치학 요점정리서, 이만복 수험국제정치사 (필수)
- 부교재: 이상구 국제정치학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집, 콤팩트 국제관계학, 변환의 세계정치, 국제정세의 이해, 현대외교정책론 (선택)
- 암기교재: Quizlet 어플을 통해 암기 카드 만들어서 자체 암기
- 최종 모의고사 교재: 이상구, 이창권, 윤경철, 신희섭 등 다수 강사 모의고사 참고 (선택)

국제정치학은 아마도 외무영사직 수험생 분들이 가장 공부하기 난해한 과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문제의 난도가 그리 높진 않지만 범위가 매우 넓고, 그 넓은 범위 내에서도 문제가 도무지 어디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정치학 공부는 “**최대한 범위를 넓게 공부하되, 얇게 공부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넓고 얇게 공부한다는 것이 말이 쉽지, 막연하고 모호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여 사상/이론 파트를 이해하는 데는 타 수험생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 그뿐이었습니다. 사상/이론 파트 출제 비중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많이 출제되어도 다섯 문제 정도일 것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자주 들곤 했던 타 수험생들의 걱정은 국제정치학은

전공하지 않으면 절대 공략할 수 없는 과목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국제정치학 역시 수험 과목 중 하나일 뿐이고,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충분히 정복 가능한 과목입니다. 과목의 특성상 95점 100점을 노리는 전략과목으로 삼기에는 리스크가 크지만, 최소 85점 정도를 확보하는 방어과목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해를 위해 굳이 파트별 학습 방법을 써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국제정치학은 사상&이론 / 이슈 / 외교사/ 세 파트로 나뉘며, 각각의 파트를 별개의 독립적 과목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슈 및 외교사 파트는 서로 크고 작게 유기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부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슈 파트와 외교사 파트 상호 간 연관되는 부분이 한층 더 잘 보이게 되고, 내용에 대한 역사적 맥락 파악 및 심층적 이해 역시 더 빨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② 우선 비전공자이고, 초시생인 분들은 이상구 선생님의 '사상과 이론편' 책을 사셔서 차분하게 일독 하시길 바랍니다. 이론&사상 파트는 처음에 잘만 학습해두고 이해해두면 절대 틀리지 않을 파트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절대 어렵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저는 부끄럽게도 올해 시험에서 어이없이 구성주의 관련된 이론 문제를 하나 틀렸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틀렸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상과 이론파트를 확실히 공부하고 이해하셔서 시험장에서는 제가 범한 실수를 답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론&사상 파트 특성상 한번 학습 잘 해놓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공생, 재시생 분들 및 국제정치학 고득점자 분들은 사상과 이론파트는 이상구 선생님의 요점정리서로만 보셔도 공부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③ 이슈 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제정치학 공부 중에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슈 파트 특성상 범위를 사실상 확장하자면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다만 무한정으로 범위를 늘리는 것이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이상구 선생님의 요약서나 기본서 '이슈편'을 구입하셔서 책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우선적으로 완벽히 소화하신다는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 이상구 선생님 책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만을 완벽히 소화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도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특정 이슈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파트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인이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지식을 확장하는 과정이 '단권화'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단권화 사실 별 거 없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부분 추가해서 적어놓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저는 단권화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는데, 실제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단권화를 충실히 해두었다면 낯선 문제들을 소거법으로 푸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예를 들자면 제가 기억하기로 이상구 선생님 책에는 올해 기출된 부시 행정부의 '건설적 관여' 정책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을 심화학습하면서 네이버 백과사전의 '건설적 관여' 파트를 따로 참고하여 필기해 두었습니다. 단권화 하며 추가한 내용이었기에 망설임 없이 선지를 소거할 수 있었습니다. 단권화를 충실히 해둔다면 설사 낯선 문제가 출제돼서 소거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소거 지문들을 우선적으로 추려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시사 이슈 및 출제 예상 이슈들에 대한 신문기사 및 칼럼을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교안보연구소(IFAN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간행물을 틈틈이 봐두시는 것도 괜찮고, 중앙일보나 시사IN 등에 외교 전문가들이 기고하는 칼럼들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일보나 시사IN이 가장 양질의 칼럼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올해 시험에서 꾸준히 칼럼을 읽은 덕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 고난도 문제로 꼽히는 이란 혁명 관련 문제를 풀 때 저는 전혀 어려움 없이 30초 만에 답을 고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전에 이란 혁명과 관련된 중앙일보 칼럼을 읽어둬서 선지의 내용들이 모두 친숙했기 때문입니다. 그 칼럼이 이란 혁명 이전과 팔레비 왕조의 몰락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었던 칼럼이었기에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칼럼을 읽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국제이슈 및 역사 관련된 좋은 칼럼들을 읽으면서 국제정치학 이슈를 접하는 안목을 더 넓힐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칼럼을 읽으셔야 할지 혼란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유형의 칼럼을 몇 개 예시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83>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43>

<https://news.joins.com/article/4116765>

- ※ 이슈 파트에서 등장하는 주요 국제기구들의 회원국들은 자신만의 암기 방법을 동원하여 모조리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시험에서 OPEC 가입국을 모두 암기하고 있었기에 OPEC 관련 문제를 20초도 투자하지 않고 답을 고르며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상&이론 파트 및 외교사 파트가 이해와 암기를 어느정도 복합적으로 요구한다면, 이슈 파트(특히 국제기구 및 지역협력체 파트)는 이해 그 자체보다는 암기가 절대적으로 우선 되어야 합니다.
- ④ 외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만복 선생님이 쓰신 수험국제정치사 책을 추천드립니다. **(아마 12월 중이나 신년에 개정판이 새로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구 선생님의 외교사 기본서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만복 선생님의 수험국제정치사 책이 조금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고, 외교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험국제정치사 책 같은 경우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의 분량이 절대 적지 않은 편이지만, 내년도 제도 개편에 따른 25문제 체제하에서는 외교사가 적어도 5문제 이상은 출제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기에 심화된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상&이론 파트와 마찬가지로 외교사 파트 역시 한번 역사적 맥락과 흐름을 잡는다면 시험장에 가서서 문제를 풀 때 절대 배신하지 않는 파트일 것입니다. 외교사 공부를 하시면서 주요 역사적 이벤트들의 연도 암기 또한 필수적으로 병행하셔야 합니다. 연도 순서 배열 문제가 적어도 한 두문제씩은 꼭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 ⑤ 모든 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학습이 끝났다면 공부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요점정리서에 단권화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단권화는 벼락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꾸준히 해두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벼락치기로 단권화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실제로 도움이 되긴커녕 시간 낭비만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권화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들로는 첫째, 시간이 갈수록 각 파트와 연관된 많은 수험서들을 다시 복습하고 훑을 시간이 없다. 둘째, 단권화된 요약서를 통해 무한 회독을 돌려야 자동적으로 반복 암기가 된다. 셋째, 국제정치학 공부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미련 없이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등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상구 선생님의 요점정리서는 정말 7급 국제정치학을 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수험적합한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요약서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상당부분 출제되어 높은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 문제, 신남방정책 문제 등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한 주요 전공 교수님들께서 쓰신 주요 단행본들(세계정치론, 변환의세계정치, 현대외교정책론, 콤팩트 국제관계학, 미국 대외정책사 etc...)의 핵심 내용들이 요점정리서 곳곳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단행본을 모두 읽고 단권화 해야한다는 압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각 파트들을 강의와 함께 혹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요점정리 강의는 굳이 들으시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 ⑥ 기출문제는 문제에 녹아있는 논점들을 최대한 분석 및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정치학은 기출문제 풀이의 효용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출 논점 정도는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기출문제가 어느정도 익숙해지셨다 싶으면 이상구 선생님의 예상 문제나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시길 권합니다.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과정을 모두 마치신 분들은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이창권, 신희섭, 윤경철 등 다양한 강사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각 선생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들의 문제를 접할 수 있다는 점과 낯선 문제들을 접했을 때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쯤은 다른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이는 최소 재시를 하는 분들에게 한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지, 초시생 분들에게는 버거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상구 선생님의 기출 및 예상문제집 두꺼운 책 한권만 잘 소화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상구 선생님의 패권반을 수강해보는 것 또한 괜찮은 방법이라 봅니다. 심화논점을 이상구 선생님과 함께 다룰 수 있고, 제공되는 자료들도 유용한 편이라 어느정도 실력이 쌓이신 분들에게 한해서는 좋은 보완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패권반에서 같이 공부하시던 상위권 분들 다수가 저와 함께 합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 또한 꾸준히 패권반에서 성적 최상위권을 유지하였는데, 등수 시스템으로 인해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성적우수상금도 받을 수 있어서 여러모로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 ▲스페인어 [80-85-85]

- 주교재: Total 스페인어 문법, 스페인어 필수동사, DELE 속어집, 기출문제 (필수)
- 부교재: 수능특강 (필수), 수능완성 (필수), SNULT, FLEX 스페인어 문제집 (권장)
- 암기교재: 네이버 스페인어 사전 활용하여 나만의 단어장 만들기 (권장)
- 최종 모의고사 교재: 박기호, 최희석, 유수진 단원별 모의고사 및 동형 모의고사 (권장)

제2외국어는 수험생활 초반 저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과목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학기에 기초 스페인어 과목을 들긴 하였지만, 문법 파트를 접속법 이전까지만 배우는 정말 기초 중의 기초 클래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알파벳, 기초적인 동사변화 정도만 아는 상태로 수험 스페인어를 시작하였습니다. 비전공자인지라 제2외국어 공부 방법을 적는 것이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저처럼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대략적인 제 공부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① 수험 초반에는 단어와 동사변화를 집중적으로 암기하였고,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에 수록된 기초적인 독해 및 문법 문제들로 기본기를 쌓아나갔습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Total 스페인어 문법책을 처음부터 제대로 본 것은 아니고, 인터넷을 뒤적이며 관련 개념들을 익혔습니다. 어느정도 기초적 문법 지식이 쌓여갈 때쯤 Total 스페인어 문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합기초스페인어(종기스) 책을 많이들 보시던데, 저는 종기스는 보지 않았고 Total 문법 스페인어 책으로 수험생활 마지막까지 스페인어 문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 책이 개인적으로 저와 가장 잘맞는 문법서였습니다. 문법 문제들은 수능특강, 수능완성에 수록된 문법 문제들로 기초를 잡고, 그 이후에는 FLEX나 SNULT 등 어학시험 교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플렉스나 스널트의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법 문제들도 존재하지만 그런 문제들도 연습삼아 풀어보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차분히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려웠던 문제들은 따로 오답 정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 문법 개념들을 체화하다 보면 어느새 문법 실력이 많이 늘어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박문각 최희석 선생님의 단원별 문법 문제풀이, 동형 문제풀이 등을 수강하시는 것도 매우 권장하는 바입니다.
- ② 단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 필수동사와 DELE 속어집 두권을 베이스로 암기 및 회독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스페인어 필수동사는 하루에 20페이지씩, DELE 속어집은 하루에 속어 25개씩 정하여 진도표를 만들고, 이 진도표를 토대로 암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영어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단어는 그 휘발성이 매우 강하여 조금만 암기를 게을리 해도 잊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언어의 기본 중의 기본이 어휘이므로 어휘 암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 스페인어 사전의 '단어장' 기능을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모르는 단어를 바로 나만의 단어장에 바로바로 집어 넣을 수 있고 나중에는 그 쌓인 단어들을 오디오를 들으며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③ 독해의 경우 역시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의 기초 지문 독해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는 플렉스와 스널트 문제집을 활용하였습니다. 문법과 마찬가지로 플렉스 및 스널트 문제집에는 풀기 어려운 수준 높은 독해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독해 지문들에서 발췌한 단어를 따로 정리하고,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해보며 복습하는 과정에서 독해 실력 역시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어 독해의 경우 어느정도 영어 독해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영어 독해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어느정도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④ 스페인어 기출문제 분석은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의 유형 및 스타일이 어느정도 정형화 되어 있는 측면도 있고, 심지어는 과거에 기출된 독해 주제들이 몇 년 만에 거의 동일한 형태로 재출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법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출제되는 빈출 문법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페인어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기출문제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고작 14개년의 기출문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모두 합해도 300문제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 280여 문제를 자다가 일어나서 풀어도 다 맞힐 수 있을 정도로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 ⑤ 현재 7급 스페인어를 집중적으로 강의하시는 분은 해커스의 유수진 강사님 한 분뿐인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 분의 모의고사 문제만 풀어봤기 때문에 강의가 어떤지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1,2년차 수험생활을 했을 때는

박기호, 최희석 선생님도 강의를 하셨었기 때문에 이 분들의 개설 강의 중 필요한 강의들을 찾아 골라 들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 강사분들 모두 개인적 사정으로 새로운 강의를 더 이상 개설하시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선생님들의 강의 수강을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생기초분들의 경우에는 기본 문법강의는 비록 예전 강좌더라도 한 번쯤은 들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박문각 최희석 선생님 강의를 추천합니다.

- ⑥ 제2외국어 과목을 아직 선택하지 못하신 분들이면 스페인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시면 금방 배울 수 있고, 또 난도 역시 타 제2외국어 과목들에 비해 수월한 편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단점이라면 학습 콘텐츠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7급 전용 학습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일어와 중어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2외국어 과목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상대적으로 쉽고 고득점 확보가 그리 어렵지 않은 스페인어를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사소한 실수들로 인해 올해에는 스페인어에 투자한 시간에 비해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최소한 스페인어가 제 합격에 발목을 잡지는 않았습니니다.

#### ▲ 국어 [65-75-80]

- 2021년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과목 개편으로 인해 수기의 효용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 ▲ 한국사 [30-60-90]

- 2021년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과목 개편으로 인해 수기의 효용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 생략합니다.

#### ▲ 면접시험

- 프라임법학원 이진우 면접팀을 강력 추천합니다. 면접 준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티윤 선생님의 풍부한 후기 자료들 및 모의 문제들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접 관련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맺는 말

○ 합격수기를 모두 작성하고 맺는 말을 작성하는 이 순간까지도 과연 제가 누군가에게 조언이란 것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느 한 사람에게만큼은 제가 남긴 합격수기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바람을 담아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행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들이고, 수험생활에 너털너털해져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을 시절에 곱씹던 말들입니다. 외무영사직을 꿈꾸는 각자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그 초심을 잃지 마시고 목표를 위해 전념하세요.

성적 한번에 확 오르지 않는다는 말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보시다시피 2018년, 2019년에 저는 합격과는 거리가 매우 먼 수험생이었습니다. 제가 저런 부끄러운 점수들을 굳이 합격수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낮은 점수를 받은 분들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첨부한 것입니다. 저도 수험기간 이런 저런 핑계 대며 짧게 후려치고, 단기간에 고득점 받은 것마냥, 내가 잘난 사람이라 합격한 것마냥, 충분히 제 잘난척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르시시즘적인 합격수기가 인생을 걸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판단은 다양한 수기를 읽으실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휘둘리지도, 일희일비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가망 없는 점수라며 빨리 포기하고 9급으로 돌리거나, 다른 직렬을 권하더군요. 그러나 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한 번 더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달리고 또 달리다 보면 언젠가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종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외교부에서 선후배 관계로서, 직장 동료로서 만나뵙길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부족한 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